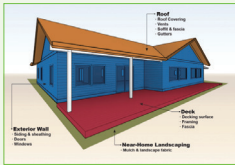


## 캘리포니아, 산불 대비형 주거 '스톤 캐니언 개발사업' 추진

<https://www.kqed.org/science/1999891/living-with-fire-inside-northern-californias-first-wildfire-prepared-neighborhood>

<https://ibhs.org/wildfireready/>

<https://share.google/McgTXf5UuTFXIUJCN>



IBHS의 산불 대비 주택(Wildfire

Prepared Home Plus) 설계 규정 개념도

출처: IBHS 홈페이지, (2018). Building a Wildfire-Resistant Home: Codes and Costs. <https://headwaterseconomics.org/wp-content/uploads/building-costs-codes-report.pdf>(검색일: 2026.2.26.)



북부 캘리포니아 최초의 IBHS

산불 복원력 인증 주택 '스톤 캐니언'

출처: KB Homes 홈페이지 보도자료, <https://investor.kbhome.com/company-news/news-releases/press-release-details/2022/KB-Home-Launches-First-Microgrid-Communities-in-California/default.aspx>(검색일: 2026.2.24.)



산불 대비 주택(Wildfire Prepared Home Plus)의

5피트 불연성 구역 설계 방식

출처: IBHS 홈페이지, (2025). 2025 Wildfire Prepared Home Technical Standard. <https://wildfireprepared.org/wp-content/uploads/WFPH-Technical-Standard.pdf>(검색일: 2026.3.6.)

대형 산불이 일상적 재난으로 자리 잡은 미국 캘리포니아 스톤 캐니언(Stone Canyon)에서 주거 설계와 지역 단위 대응 전략의 근본적 전환을 보여주는 새로운 주택 개발 모델이 등장하였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서쪽 산기슭(Sierra Foothills)의 캐머런 파크(Cameron Park)에서 추진 중인 '스톤 캐니언 개발사업'은 내화 성능을 강화한 주택 설계를 통해 지역 전체의 화재위험 저감을 목표로 하며, 기후위기 시대 주거 정책의 방향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개발사업은 단층 주택 24세대로 구성되며, 완공 시 북부 캘리포니아 최초의 '산불 대비형(wildfire-prepared) 동네'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업 및 주택 안전 연구소(Insurance Institute for Business & Home Safety: IBHS)의 최고 산불 저항성 인증 기준을 반영하여 미국 주택 건설업체 KB 홈(KB Home)이 설계하였으며, 개별 건축물의 내화 성능뿐만 아니라 동네 단위의 집단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설계 측면에서는 'Zone 0' 개념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는 주택 외벽 주변 약 5피트(약 1.5m) 폭을 불연성 완충 지대로 조성하여 불씨 축적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화강암 자갈이나 포장석과 가물에 강한 식재 등이 활용된다. 또한 A등급 내화 지붕, 밀폐형 처마(enclosed eaves), 복층 강화유리 창호, 섬유 시멘트 보드(fiber cement board) 외장재, 화염과 불씨에 강한 통풍구 등 비가연 재료 중심의 설계가 적용되었다. 또한 울타리는 금속 게이트를 통해 주택과 직접 맞닿지 않도록 구성하여 화염 확산 경로를 차단하도록 설계하였다.

IBHS는 이러한 안전 요소가 개별적으로 적용될 때보다 단지 전체가 동일한 기준을 따를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분석한다. 이는 산불 위험이 인접 필지와 주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재난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동네 단위의 집단적 실천이 지역 위험도를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 내화 설계 주택들이 구조물 간 연쇄 화재를 억제함으로써 인근 기존 주거지에도 간접적인 보호 효과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향후 산불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내화 주택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Zone 0' 기준을 포함한 정책 가이드라인 정비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동네 단위 재난 대응형 주거 개발 모델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